

# 한국 개화기 춤의 사상

이 미 영

이화여대 · 국민대 강사

I. 서 론

II. 개화기의 사상적 개관

III. 개화기 무용의 흐름과 특징

IV. 유길준-개화기 무용의 사상사적 의미

V.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 I. 서 론

“모든 역사는 현대사이며 현재와 과거를 잇는 끊임없는 대화”<sup>1)</sup>라는 역사학계의 오랜 전통과 같이 현대 무용의 특성과 방향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선행되어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전통시대와 현대를 잇는 과도기로서 개화기 무용이 갖는 의미는 결코 적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개화기에 대한 연구는 무용사에 있어서 매우 미미한 실정이었다.

한말(韓末)에 밀어닥친 개화사상은 단일한 요소에 의해 생성된 것이 아니라 정치·경제·사회·종교·철학 등 모든 분야와 관계를 맺고 있는 한 시대의 주된 사상이었다. 그러므로 이러한 개화사상이 문학, 음악 등 다른 예술에서와 같이 무용에 미친 영향은 어떠했는지, 당시 개화 사상가들의 무용에 대한 인식은 어떠했는지 등에 관한 연구는 무용사에 있어서 중요한

1) E. H. Carr.(1974), *What is History?*, Pelican Book, p. 24.

과제라 할 것이다.

이 논문은 19세기 후반기에 개항(1876)을 전후해서 나타난 개화사상(開化思想)을 통하여 당시 무용의 흐름과 특질을 살펴보기 위해 마련되었다. 개화기의 격동적인 변화와 함께 당시 시대가 안고 있었던 구(舊)문화와 신(新)문화와의 충돌 속에 무용이 쇠퇴, 변모, 발전하게 된 과정들을 살펴보고 그것이 현재의 무용 상황에 대해 갖는 의미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특히 구당(矩堂) 유길준(1856-1914)은 격동의 시대적 상황 속에서 근대국가로의 개혁에 앞장섰던 대표적 개화사상가이자 민족지도자였다. 이러한 그의 역사적 위치를 고려해 볼 때, 그의 사상연구는 우리나라 개화기의 근대적 무용사상의 형성과 그 성격규명의 일환으로써의 가능성을 시사해 준다고 보여진다.

시기적으로 아직까지 민중들의 삶에 봉건적인 잔재와 폐해가 깊게 남아 있었던 당시에, 무용이 극장이라는 무대공간을 통해 사회저변으로 파고들게 되고 근대적 문화의 선봉적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생각하느바, 그 시대에 큰 영향을 준 무용사상사에 대한 접근은 우리나라 무용사를 연구함에 있어서 의의가 있다고 본다.

## II. 개화기의 사상적 개관

한국 근대사의 기점이 되는 개화기의 시대구분은 다른 시기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형태로 시도되어 왔다.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을 살펴보면, 1967-68년 ‘한국사 시대구분 문제’ 심포지엄에서 제시된 여러 견해가 나타나고 있다.<sup>2)</sup> 한편 1975년 간행된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의 16권 근대 편은 1864년 대원군 정권 등장을 사실상 근대의 기점으로 하여 서술하고 있

---

2) 유원동(劉元東)은 자본주의 맹아를 중심으로 한 사회경제질서의 변화에서 근대의 기점을 찾는 입장으로, 상업활동과 자본 축적을 근대자본주의적 경제내용으로 파악하여 18세기 후반 영·정조대를 근대의 기점으로 제시했다.

이선근(李瑄根)은 유럽 근대문명의 도전에 대한 한국의 대응형태 속에서 근대의 기점을

다.<sup>3)</sup> 1986년 강만길(姜萬吉)은 ‘한국 근·현대를 어떻게 볼 것인가’하는 논고에, 주체적인 면에서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반에 걸친 근대적 변화를 처음으로 추구한 계기는 갑신정변이라 하여 근대의 기점을 1884년의 갑신정변에 설정하고 있다.<sup>4)</sup> 식민지 및 반식민지의 민족사에서는 시민국가의 형성 및 경제적 근대화가 근대의 특징이 될 수 없고, 보다 중요한 척도는 식민지 민족의 반제투쟁이라는 전제에서 이 논문에서는 전통과 근대문명의 과도기가 되는 개화기(開化期)를 1876년 개항 이후부터 1910년 한말까지로 보기로 한다.

1876년 문호개항이전 한국사의 전개는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영향을 받고 있었으며, 한국사회 내부모순의 갈등 대립에 의해 전개된 격동기의 역사였다.<sup>5)</sup> 개항과 함께 세계 자본주의 체제에 편입되어 종래의 자기완결성을 상실하고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되었던 것이다.

당시 진보적 사상가였던 개화파의 주장은 서양 문명을 받아들여 근대적 개혁을 시도하자는 것이었고, 이것의 대안으로서 실시되었던 것이 ‘별기군’<sup>6)</sup>이라는 신식군대의 창설이었다. 그러나 이미 존재해 왔던 구식군대가

---

찾는 입장으로, 1860년 동학의 발생과 대원군의 ‘혁신정책’을 평가하여 1860년대 기점설을 제시했다.

조기용(趙機溶)은 식민지 및 반식민지의 민족사에서는 시민국가의 형성 및 경제적 근대화가 근대의 특징이 될 수 없고, 보다 중요한 척도는 식민지 민족의 반제투쟁이라는 전제 아래 한국 근대사의 기점을 1876년의 개항으로 제시했다.

이용희(李用熙)는 18세기 후반 영·정조대로부터 1894년 ‘동학란’까지를 묶어서 근대화의 과도기로 설정할 것을 제시하였다.

천관우(千寬宇)는 노비제의 폐지와 토지, 화폐제도의 근대적 개혁을 논거로하여 1894년의 갑오개혁을 근대의 기점으로 설정하고 있다.

김경태(1987), 『근대 한국의 민족운동과 그 사상』, 이화여대 출판부, p. 14.

3) 국사편찬위원회(1975), 『한국사』 16.

4) 강만길(1986), “한국 근·현대를 어떻게 볼 것인가”, 『신동아』 8월호.

5) 특히 대원군이 정치 권력에서 실권하게 됨을 계기로 대신 정권을 잡게 된 민씨가 당시 새로운 세계관으로 등장하게 된 개화파와 그리고 일본과 손을 잡게 되면서 대원군 시절 쇄국정책으로 문을 굳게 걸어 잠근 정책으로부터 벗어나 외국과 문호를 개방하기 시작한다. 그러나 민씨가 문호를 개방하게 된 원인은 진보와 주체적 조건 속에서 문호를 개방시켰다기 보다는 단지 자신의 세력을 유지시키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서 밖으로는 외세에 의존하고 안으로는 분쟁을 피하기 위함이었다.

6) 별기군은 민씨가 군사력을 양성하여 보다 많은 자신의 동조 세력을 확대시키고 세력 기반을 굳히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었다.

신식군대와외 불평등한 차별대우를 받게 되자 임오군란(1882: 고종 19)을 일으켰다. 임오군란 이후 개화파는 민씨 세력을 무너뜨리고 이조 오 백년 동안 종속관계에 있던 청 국과의 관계를 청산하고자 하는 의도로서 우정국 개국 축하연에서 갑신정변(1884)을 일으키게 되는데 갑신정변은 비록 3일 천하로서 그 실패의 매듭을 짓게 되나 개화파에 의해서 주도되었던 위로부터의 개혁이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지배층 세력의 분쟁이었던 임오군란과 갑신정변을 겪는 동안 청과 일본의 세력은 조선에 대해 더욱 심한 각축전이 벌였으며 지배계층이 보여준 대외 의존성 등에 크게 실망한, 당시 봉건 사회에서 대다수를 차지하는 농민계층은 이를 계기로 분화되는 현상을 보이게 된다. 여기에 새롭게 등장하게 된 ‘동학’ 사상은 농민들이 갖고 있었던 봉건체제에 대한 반감을 하나의 힘으로 모으는 데 그 매개 적 역할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마침내는 갑오농민전쟁(甲午更張:1894)을 유발시키게 되었고 후에 일제시대의 반일 운동에 대한 중심세력의 발판을 굳히는데 그 뿌리가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이 시기의 우리 민족의 역사는 근대지향성이 강렬했던 개화사상(開化思想)과 자주수호의 의식이 강했던 위정척사사상(衛正斥邪思想) 그리고 반 침략, 반봉건의 동학사상(東學思想)을 배경으로 전개되었다. 개화사상은 후에 갑오개혁을 이루는 추진력이 되었으며, 위정척사사상은 바른 것을 지키고 그릇된 것을 내친다는 사상으로 근대화를 역행하는 의병투쟁을 하는 순기능의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동학사상은 ‘사람이 곧 하늘이다’ 라는 인내천(人乃天)사상으로 1874년과 1894년의 대규모 민중혁명을 일으켰고, 아래로부터의 혁명인 동학사상은 갑오경장과 청일전쟁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었다. 청일전쟁을 계기로 청으로부터 조선의 종주국이라는 위치를 빼앗은 일본은 강압적으로 조선의 정치, 경제, 사회에 걸친 전반적인 개혁을 강요하게 되고, 정부 내의 개혁세력은 일본의 외적 작용을 개혁의 계기로 삼아 과감하게 근대적인 갑오경장의 개혁운동을 펼치게 되는데, 그 내용은 신분계급제도의 타파와 악습의 타파, 청의 종주권 부인, 과거제도의 폐지, 각종 제도의 개혁 등이다. 개화사상의 흐름 속에서 근대적 정치의식을

깨닫게 된 인사들은 독립협회를 만들어 민중의 정치적 계몽을 꾀하였고, 1905년 을사보호조약 이후로는 민족의식 세력 그리고 보수적 유교사상인 위정척사 세력과 연합하여 국권회복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하였다. 그러나 끝내 한국 근대사의 영원한 역사적 치욕으로 기록되는 1910년 8월 29일 한일 합방으로 조선왕조는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게 되었다.

따라서 개화기는 한국사회의 대 전환기에 속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것은 한국이 동양 중심의 사회에서 벗어나, 서구(西歐)라는 이질적인 세계와의 국제관계가 제도화됨으로써 지금까지 고착되어 온 가치 질서에 동요를 일으켰고, 외세의 도전 혹은 영향이 국민의 구체적 현실에까지 파고들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동요와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대응책이 마련되어야만 했기에, 당시의 진보적인 사상가들은 하루 속히 개화가 되어야 한다고 믿고 외국의 문물을 받아들여 국력, 즉 부국강병(富國強兵)을 이룩할 것을 주장하였다. 결국 개화를 이루지 못하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국가의 명맥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이렇게 보면 개화사상은 외세의 도전에 대한 현실적인 대응책으로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개화사상은 당시의 사회세력의 성장보다 앞선 선진적 사상으로 인하여 시민 층의 지지기반의 확보에 취약하였던 한계성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문화적으로 당시 사회에 큰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즉, 사회적으로는 착취적 양반제도를 폐지하여 국민의 자유와 평등을 실현하고, 인재를 능력에 따라 뽑아 쓰고, 민중의 힘을 민족의 방위와 발전에 효과적으로 동원해야 함을 주장하였으며, 문화적으로는 종래의 중국의 경서(經書), 사서(四書), 시문(詩文) 중심의 교육을 근본적으로 개혁하여 근대의 합리적 과학문화를 수립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근대학교를 설립하여 국민에게 새로운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한자(漢字) 문화권에서 탈피하여 세계 각 지역의 문화를 모두 흡수하면서 자기 민족의 역사와 언어·문화·예술을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특히 스스로의 힘에 의한 국가방위를 위한 신식군대화(新式軍隊化)를 강조하였다.

또한 1896년 독립신문 창간과 함께 독립협회가 창설되면서 일으킨 신문화 운동의 개화사상은 점차 민중 속으로 침투해 들어갔다. 첫째, 민족주의 사상(民族主義思想)-자주독립사상(自主獨立思想)은 민족공동체의 주체성, 국민적 통일과 애국심, 민족문화의 창조와 발전, 외국이권(外國利權)에 대한 저항(抵抗), 방어기구(防禦機構) 둘째, 민주주의 사상(民主主義思想)-자유민권사상(自由民權思想)은 개인의 지위와 역할의 변화, 가족과 문벌(門閥)의 구조 변화, 신분제도의 변혁, 부인(婦人)의 지위의 변동, 신제도(新制度)의 수립과 사회적 구조단위의 분화(分化) 셋째, 근대화 사상(近代化思想)-자강개혁사상(自強改革思想)은 정체(政體)의 근대화, 관료제(官僚制)의 근대화, 신지식(新知識)의 보급과 학교의 설립, 기술 혁신과 산업화(産業化), 사회관습(社會觀習)의 합리화에 영향을 주었다.<sup>7)</sup>

이러한 개화사상이 예술계 전반에 끼친 영향을 좀 더 살펴보면, 문학은 언론 매체를 통한 신문학 운동 전개와 더불어 기독교의 성서 번역이 산문 문체에 영향을 끼친 사실과 찬송가의 보급에서 창가, 교가, 군가 등 단체의 노래를 짓는데 있어 형태적 틀을 제공하는데, 기여하는 등 막강한 전파력으로 대중에게 다가갔다.<sup>8)</sup> 음악은 이화여전, 연희전문 등에서 정규교과로 교육되었고 선교음악과 방송국의 개국도 음악 전파의 중요한 토대였다. 미술은 정부 주도의 관제 미술제와 협회의 전람회가 있어 지속적인 미술활동의 기회가 마련되었고 극장을 세워 공연의 토대를 마련한 연극과 기업의 투자로부터 힘을 얻었던 영화의 경우는 자체내의 결집력을 보이며 발전했다.<sup>9)</sup> 이러한 가운데 서구(西歐)와 다른 문화권에 속해 있는 한국무용도 여기에 자극을 받아 고유한 전통양식(傳統樣式)에서 벗어나 자유롭고도 능동적인 자세 위에, 오늘의 새 시대에 알맞은 새로운 무용을 모색하게 되었다.

요약하면, 개화사상은 실학적 전통을 기반으로 하는 내재적이고 자주적

7) 정승희(1993), “근대무용의 태동과 민족주의적 무용사상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무용과 창설 30주년 기념 논문집, pp. 18-19.

8) 신동욱(1984), 『한국 근대문학의 성립과 그 발전』, 성신여자대학교 인문과학 연구소 편, 성신여자대학교 출판부, pp. 18-20.

9) 이상연(1997), “춤 창작 경향에 비추어 본 근대 한국춤의 역사적 의미”, 중앙대학교 대학원.

인 형성과 외래사상에 영향 받은 타율적 형성인 동시에 융합한 만큼 자율과 타율 사이에서, 그리고 전통과 서양적인 것 사이에서 괴리를 갖고 있었다. 그러나 19C 중엽의 사회사상을 통해 전통의 내면에서 사상적으로 근대로 나아가는 주체적 자기 전개와 한 형태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한국사에 있어서 주체적 발전 가능성을 제시해 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sup>10)</sup>

### III. 개화기 무용의 흐름과 특징

양반 중심의 관료체제하에 철저한 신분제도를 고수했던 조선은 1895년 갑오개혁을 기점으로 노비제도와 인신매매를 비롯한 전통적인 신분제도를 최종적으로 폐지시킨다. 조선 말기의 특징적인 변화로는 첫째, 왜란과 호란에 따른 수취체제의 변화로 상품 화폐 경제의 진전과 토지, 경영의 변화, 농업기술로 새로운 자본층과 부농을 형성하여 양반수가 급증하고 양반의 가치가 하락되었다는 점, 둘째, 통치인 성리학의 소태와 더불어 실학의 등장으로 고루한 화이적 세계관을 탈피하여 세계를 인식하고 천시했던 기술의 인식을 새롭게 하였으며 일찍부터 신분제도 철폐와 노예해방을 주장하게 된 점, 셋째, 한글 창제후 국학의 부흥과 같이 민중의식이 성장했다는 점등을 들 수 있다.

개항이후 제국주의 열기와 식민지 쟁탈의 희생제물이 되었던 조선은 반외세 민중봉기로 동학혁명을 일으켰으며 의병활동, 독립협회와 만민 공동회 애국계몽운동, 3.1운동에 광복군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구국운동과 대중계몽을 통해 국권을 회복하고자 노력했다. 즉 근대의 두드러진 특징은 제국주의 열강의 식민지 책략으로 인한 애국심과 민족주의에 발흥, 구국운동과 민족적 자각운동이 주류를 이룬다고 말 할 수 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하에 예술 분야에서도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서양문

10) 나성원(1982), 『유길준의 교육사상연구』, 홍익대 대학원, p. 11, 27.

화가 점차 유입되기 시작하면서 이른바 ‘양악’이 들어오게 되고, 500년이라는 전통 아래 면면히 이어져 오던 우리의 전통 음악은 ‘양악’과 상대적 의미인 ‘국악’이라는 명칭으로 불리며, 이왕직악부에 의해 겨우 명맥만 유지하게 된다.<sup>11)</sup> 민속악에서는 판소리를 극화한 창극이라는 형태의 공연이 협률사, 원각사 등의 극장에서 올려지고 대중의 사랑을 받게 된다. 서양문화의 홍수 속에서 조선어학회 등을 중심으로 한국어 운동이나 진단학회를 중심으로 한국사운동이 펼쳐지게 된 것도 이 시기의 일이다.

무용계도 커다란 변화를 겪게 되는데, 그 변화의 양상을 몇 가지로 대별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예와 악을 중요시하던 조선의 국시로 인해 성장과 발전을 거듭하던 궁중무용 정제는 대내적으로는 당쟁, 대외적으로는 왜란, 호란 등을 거치면서 조선시대 말에 이르러서는 궁중무용인 향악/당악 정제의 명칭이 소멸되고 내용을 구분하기도 어려워지게 된다.

순종 28년 행해졌던 궁중무용을 보면 당악정제의 표상인 죽간자를 없애고 또 춤의 시작과 종결을 알리는 역할을 하던 앞 뒤 구호와 치어의 절차도 없어졌다. 향악정제라고 하면서도 당악을 반주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두 정제의 춤사위도 별다른 구별 없이 혼용되고 있는 상태였다. 이러한 혼란은 시대적으로 민속무용이 다양한 내용과 형식으로 변모되어 가면서 궁중정제를 압도했기 때문에, 왕실을 비롯한 문무 관료들이 정제에 대한 별다른 취미를 느끼지 못한 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따라서 궁중무용과 민속무용이 한 무대에 어우러짐으로써 향악 당악의 구별은 물론, 정악과 속악의 경계선 또한 붕괴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궁중무용이 쇠퇴해가는 가운데, 19세기 초인 순조(1801-1833) 때에는 특이하게도 새롭게 창작된 향악정제가 30여종류나 된다. 그러나 이 때 새롭게 창작된 향악정제는 절차를 간략화하고 한문 대신 국한문 혼용으로 된 창사를 사용했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것은 초무, 만선무에서 볼 수 있듯 보는 사람의 취향에 맞게 복잡한 형식을 피하며 민중이 관람하여도 쉽게

11) 송방송(1984), 『한국음악통사』, 일조각, p. 518.

이해할 수 있는 무용으로 나아가고 있는 방향을 보여준다.

두 번째로, 그 이전의 무용은 주로 궁궐 안에서만 행하여져서 일반인들에게는 공개되지 않는 것이 보통이었는데, 이 시기에 이르면 궁궐에서만 행해지던 무용이 점차 일반인들에게 공개되기 시작하였다.<sup>12)</sup>

사회적 맥락에 따라 전통사회에서의 춤의 종류를 나누어 본다면, 먼저 궁중무 같은 춤으로서 예술적 표현보다는 종교적인 행사, 또는 춤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어떤 의식화된 제전 같은 데서 추어지는 춤을 들 수 있다. 둘째로 유흥적인 오락의 대상으로 추어졌던 춤으로서 양반이나 관료나 부호들의 잔치에서 구경거리로 추어졌던 춤으로서, 여기에 동원된 이들은 직업적인 연희자들도 있겠고 기생같이 춤만이 전문은 아닌 연희자들도 있다. 셋째로 일반 평민들이 그들의 절실한 감흥을 스스로의 동작으로 표현하는 춤이 있다.<sup>13)</sup> 이렇게 전통사회에서는 춤이 진행되는 장소, 연행하는 사람, 주된 관중의 특질 등에 따라 춤의 종류가 엄격하게 구별되어 있었는데, 이 시기에 이르면 이러한 구분들이 모두 사라지게 된다.

궁중에서는 대한개국 기원절이나 만수성절, 기타 외국 사신 접대시에 기녀들의 궁중무용과 광대들의 판소리, 국악인들의 가야금을 한꺼번에 연행하였고, 특별한 날에만 행하였던 산대도감 같은 놀이도 무대없이 야외에서 수시로 연희되었다. 이는 앞서 말했듯 전통사회에는 궁중에 사는 왕실 가족이나 양반들을 위한 춤, 일반 평민들을 위한 춤 등이 엄격하게 구별되었으나, 이 시기에 이르면 그런 구분들이 사라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세 번째로 연행자인 기생의 활동이 그 이전처럼 제한되지 않고, 다양하게 이루어진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기생’이란 말은 영조 무렵부터 쓰인 듯하고<sup>14)</sup> 그 이전에는 주로 ‘여악’이라고 불렀는데, 보통 이 여악들은 평상시에

---

12) 예술행위자와 보는 사람이 따로 있는 식으로 발전한 일반예술론과는 달리, 조선후기에 와서는 춤이란 것은 함께 즐기는 것이지 누구를 추도록 해놓고 한쪽에서 이를 바라보는 식으로 춤추는 사람과 보는 사람이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춤 본래의 궤도로 돌아가려는 움직임이 강하게 일어났다.

채희완(2000), 『한국춤의 정신은 무엇인가』, 도서출판 명경, p. 274.

13) 앞의 글, p. 304.

14) 송방송(1984), p. 559.

는 한양 주변이나 지방에 있다가, 나라의 큰 잔치인 진연, 진찬, 진작 때면 상경하여 잔치 행사를 치르고 다시 귀향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시기에 이르면 기생들의 종류도 다양화되고 그만큼 활동도 활발해진다. 당시에 이루어진 전통무용 공연을 보면 대부분 조선 기생들이 소속된 단체를 중심으로 한 경쟁적인 공연이었다. 특히 1900년도에는 관청에서 모집해 가무를 익힌 기생들에 의해 궁중에서 연회가 많이 베풀어졌다. 하지만 이 당시 우리나라는 예술을 천박한 것으로 인식하였으며, 관기제도의 폐지로 장악원에 있던 기녀들이 각 지방으로 흩어져 기생조합으로 결집하였기 때문에 한국 전통춤의 서구식 무대공연은 주로 관기와 기녀들에 의해서 공연되었다. 관기들에 의해 공연된 춤으로는 아박무, 대고무, 선유락, 가인전목단, 향장무, 무산향, 춘향전, 검무 등이 있었으며, 일반 기녀들은 승무, 입춤, 농악무, 살풀이 등 전형적인 민속무용의 공연을 주로 하였다.<sup>15)</sup>

네 번째, 개화기 또는 계몽기라 부르는 이 시기에 다른 장르의 여러 예술에서도 서구화가 진행되었듯이 무용도 형식적으로나마 서구적인 무대를 갖추게 된다. 갑오개혁 이후에는 서울이 상업도시로 변모하고 번창해감에 따라 시민들의 문화생활에 대한 욕구가 팽배하면서 극장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1902년에는 황실의 지원에 의해 500석 규모의 극장인 우리나라 최초 극장인 협률사(1902-1906)가 궁내부 소관으로 개관되면서 처음에는 주로 관기들의 아박무, 대고무, 가인전목단, 향장무, 춘앵전 등이 공연되었다. 1908년 이인직에 의해 우리나라 최초의 서구식 극장인 원각사(1908-1914)를 준공하였는데, 이 원각사에 의해 우리나라의 전통춤이 최초로 서구식 무대에서 공연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광무대(1907), 단성사(1907), 장안사(1908), 남성사, 공진회장의 연예관, 수관, 중앙 기독교회관과 같은 강당과 다중의 연회장 극장 등에서 공연되었다. 이처럼 개화기의 공연문화가 옥외에서 옥내극장으로의 공간 이동되어 새로운 공연예술양식을 잉태하는데 큰 영향을 주었음을 알 수 있다.

15) 김복희(1996), “광복이전의 한국적 현대무용의 발전과정”, 대한무용학회 제19집, p. 142.

이와 같은 극장들이 등장하면서 우리 춤이 ‘무도(舞蹈)’, 도무(蹈舞), 춤, 무희(舞戲), 유희(遊戲), 연무(演舞)라는 이름으로 무대에 올려지기 시작했다. 19세기에 ‘무용’이란 단지 신체를 이용하여 신출 기묘한 연기를 창출하는 재주, 기예를 의미하며 본래 무용에 대한 우리 식 표기는 “춤”이었다. 당시의 극장에 대한 개념은 무대예술에 대한 감상과 인식의 차원에서가 아니라, 사람이 모이는 장소로서의 무대 공간개념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극장의 설립은 연극뿐 아니라 무용이나 놀이의 공연장소가 서구식 무대화됨으로써, 대궐의 뜰이나 연회석에서 추던 정재나 마당 굿의 공연형태에 변화를 요구하게 되었다. 특히 궁중무용이 일반에게 소개되기 시작한 1900년경 전통 춤이 극장 무대형식에 맞추어 춤 형식에 약간의 변화를 주었으며, 그 중에서 반복되는 동작을 삭제하고 간략히 변화시켜서 새로이 개작한 춤이 나오기 시작하였다.<sup>16)</sup> 따라서 이제까지 마당 굿 형식으로 대중과 함께 즐기던 민속 무용이나 민속놀이 또한 서구식 무대조건을 갖춘 극장무대로 옮겨가면서 우리 춤도 무대에 어울리게 변화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한일합방 직전에 이르러서는 각종 무대에서 무용의 공연이 빈번하게 이루어졌으며, 무용공연은 개화기에 있어서 신문명 예술의 대표격이라 할 수 있는 활동사진의 상영과 함께 행해져서 대중적 흥행의 기반을 둔 각 장르간의 문화교류가 활발하였음을 알 수 있다.<sup>17)</sup> 또한 이 시기 연희의 특징은 무용이 독자적으로 공연되기도 하고, 음악회나 연주회에 등에서 무용이 삽입되어 가무악이 차례로 공연되는 연출형식을 갖기도 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국운이 점점 쇠퇴해짐으로써 궁중에서의 무용은 소멸의 길을 걷게 된다.

#### IV. 유길준-개화기 무용의 사상사적 의의

앞장에서 개화기에 무용이 겪었던 여러 가지 변모의 양상을 살펴보았다.

16) 이영희(1984), “한국 근대무용 사조에 관한 일고찰”,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p. 8.

17) 김운미(1998), 『한국교육무용사』, 한학문화출판사, p. 35.

여기에서 개화사상이라는 측면에서 무용이 당시에 어떻게 받아들여졌는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그런 면에서 개화사상의 모체가 되는 인물인 유길준의 사상이 무용교육의 측면에 미친 영향을 재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유길준은 무용교육의 가치를 크게 인식하여, 우리나라 고등학교 교과목에 『인신학(人身學)』과 『춤』을 넣을 것을 주장한 바 있다.<sup>18)</sup>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유길준은 19C末과 20C初의 근대화가 시작되는 격동의 상황 속에서 개화기 주체사상에 지대한 영향을 준 대표적인 인물로 꼽히는 사람<sup>19)</sup>이다. 그는 갑신정변, 갑오개혁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혁신적 개혁운동에서 사상적으로나 실제 정치적으로 주동적 역할을 하였다. 그리고 1880년대에서 1910년대까지 우리나라 개화기에 글을 제일 많이 쓴 인물이기도 하다. 그는 실학사상을 개화사상으로 계승, 발전시켜 학문적인 수준으로 향상시켰으며, 그의 학문과 사상은 당시 개화사상가들에게 지도적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그의 대표적 저서인 『서유견문(西遊見聞)』은 우리나라 개화사상을 집대성한 역사적인 저서로서, 우리나라에 최초로 서양을 소개하여 국민의 지식을 넓히는데 큰 역할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개화운동의 교과서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특히 『서유견문』은 우리나라 근대국가로의 분기점이 된 갑오개혁의 사상적 모체가 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유길준은 『서유견문』 제 3편 “국가의 권리”, 제 5편 “정부의 시초”에서 교육을 국민의 권리로써 인식하면서, 교육의 대법(大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교육의 대법에는 그 명목을 나눌 수 있으니, 첫째로 도덕의 교육이며, 둘째는 재예(才藝)의 교육이며 셋째는 공업의 교육”이라고 하

18) 유길준(1986), 『서유견문』, 김태준(역), 삼성미술문화재단, p. 211, 189.

19) 유길준(1856-1914)은 일본과 미국에 유학한 최초의 한국인으로서 서구근대사상을 터득한 유일한 사람이다. 그는 임오군란으로 1년간의 유학을 중단하고 귀국하여, 통리교보상사무위문(統理交漕商事務衙門)의 주사(主事)로 임명되어 2개월 후 1883년 美사절단의 수행원으로 미국으로 가게 된다. 그곳에서 미국인 모스의 영향과 뎀퍼학원에서의 근대적 교육이 그의 개화사상에 큰 의미를 지니게 되는 계기가 된다. 이 때, 그는 유럽 여러나라를 시찰하게 되는 기회를 갖게 되는데, 여기에서 발달된 서구문명의 진수를 직접 접하게 된다. 이러한 복합된 경험들이 『서유견문』을 낳게 하였다.

면서, 재주와 예술은 사람의 재주라 하였다.<sup>20)</sup> 이것은 실학사상의 정덕(正德). 이용(利用). 후생(厚生)의 연장선으로써 이해될 수 있으며, 당시에 실업교육이나 예술을 강조한 것은 획기적인 사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그는 『서유견문』 제9편 “교육제도”에서는 서양의 사정을 소개하면서 “서양인들이 가르치는 도(道)에는 (中略) 건강증진 방법에도 극진하여 대학교에서는 의사를 두어 학생들의 낭리·신체·골격 등을 살펴 부족한 것을 보충시켜주니… 각종기계로 팔의 힘과 호흡력, 다리의 힘, 허리힘, 오장육부의 기력까지 시험하여 부족하면 상당한 운동을 시킨다.”<sup>21)</sup>고 하였다. 이것은 그가 유학 시절 체득한 근대적인 운동에 관한 인식의 한 단편을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는 여가 선용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계몽하면서 여가를 보내는 방법들, 즉 무도회, 음악회, 야유회, 유치회(幼稚會): 주로 가난한 집 아이들에게 의복 등을 나누어 주고 부자아이들과 함께 음악회, 무용 등을 강습하는 것), 연희(演戲), 산디놀이(野遊) 등을 소개하였다. 이를 통해 유길준이 교육 또는 오락이라는 측면에서 무용을 중요한 수단으로써 인식하였던 면들을 발견할 수 있다.

당시에는 전통적인 조선조 봉건사회의 정치이념제도와 유교사상에서 벗어나 개화사상이 정치·경제·교육·예술 등 사회전반에 영향을 주게 되면서, 시민들의 문화생활에 대한 욕구가 늘어나고 극장무대가 등장하게 되었다. 남존여비와 인습으로 남녀 격리법이 철저하여 여성들은 놀이 문화를 누릴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춤 즉 무용 같은 것은 기생(女妓)들에 의해서만 행해진다고 여겼던 조선시대와는 달리, 개화기에는 여성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문화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무용에 대한 개념 자체가 조금씩 바뀌게 되었던 것이다. 즉 사람이 모이는 장소로서의 무대공간개념이 확립되어 감에 따라 무대예술에 대한 감상이라는 인식이 확대되고, 옥내극장의 춤 공연들이 계속 늘어나면서 춤의 독자성을 인정받게 되어, 무용이 본

---

20) 앞의 글, p. 93.

21) 앞의 글, pp. 212-213.

격적인 근대 무대예술로서 성립될 수 있는 상황이 갖추어져 갔던 것이다. 이렇게 갑오경장 이후 개화의 열망과 함께 출현한 청년층, 지식층 등 새로운 계층에 의해 교육·문화사업은 더욱 확장, 발전하였다.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 개화기 이후 신식교육을 받은 최승희나 조택원 등이 후일 일본으로 건너가 새로운 무용(Neue Tanz)을 배움으로써 한국에서 근대무용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다.

개화기 사상이 무용에 적극적인 영향을 주었던 면모는 없으나, 유희의 하나로서 무용의 교육적인 면의 인식과 서양식 무대를 사용함으로써 무용의 개화가 시작되었으며, 여기에 유길준과 같은 선도적 개화 사상가가 무용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길을 터주게 되니, 무용에 대한 개념과 작품양식전반에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들은 무용사적으로 큰 의의를 찾을 수 있다.

## V. 맺음말

개화기에는 시대적 위기상황으로 인하여 각기 다른 입장의 사상들이 형성되는데, 첫째, 양이(洋夷)들의 침략의도와 근대문명과 자본주의 체제를 척사(斥邪)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위정척사사상, 둘째, 열강의 침략의도는 배격하면서 그들의 문명이나 자본주의체제는 수용하고자 한 개화사상, 셋째, 조선의 붕괴기에 있어서 민중들의 사상적 편력을 대표하고, 농민들의 보국안민사상에 바탕을 둔 동학사상이 그것들이다.

이 가운데 개화사상은 다른 예술과 마찬가지로 무용 분야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쳐, 한편에서는 전통적인 궁중정제가 대중 속으로 파급되어 관람하는 예술로서 자리잡게 되고 다른 한편에서는 민속에서의 춤이 상승하여 새롭게 발전하고자 하는 움직임도 생겨나게 되었다.

여기에 개화사상의 모체가 되는 유길준을 비롯한 당시 지식인들은 서구의 교육사조와 문화를 수용하여 무용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을 전환시켰다

고 할 수 있다. 특히 유길준의 사상은 국내에서 습득된 실학과 개화사상의 바탕 위에서 일본, 미국 등지에서 체득한 서구 근대사상의 조화로운 접목에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그의 사상적 특징이 그대로 무용사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점들을 발견할 수 있다. 즉, 유길준은 근대적 민권, 자유사상이 그 바탕을 이루어서,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근대적 교육 또는 여가, 예술개념을 파악하고 계몽하여 무용을 그 중요한 수단으로써 인식하였던 사실들과 더불어, 무대예술을 감상할 수 있는 극장공간이 많이 생기게 됨에 따라 무용이 본격적인 예술로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보여진다.

이상의 연구를 통해 개화기 30년 간 역사의 굴절된 상황 속에서도 무용이 스스로의 독자적인 주체성을 찾고자한 시도를 발견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개화기 이후 한일합방으로 우리 문화가 단절되어, 더 이상의 발전은 찾아볼 수가 없게 되었다. 위의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오늘날의 무용 상황에 대한 올바른 견해를 수립함과 더불어 건강한 무용문화를 이끌어가기 위해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무용은 민족적인 인식으로부터 출발하여, 사회의 한 반영물로서 시대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해 왔다는 것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둘째, 무용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올바른 역사적, 문화적 인식과 더불어 모든 사람들이 함께 공유하고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작업을 이루어내기 위해 꾸준한 노력들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셋째, 전통무용이 사회적으로 그 위치를 회복하고 외국무용과의 자연스러운 조화를 이루기 위해 좀더 확대된 의미의 창작무용의 정립과 함께, 우리 춤 연구 즉 민족무용에 대한 방향 모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 참고문헌

- 강만길(1984). 『한국근대사』, 창작과 비평사.  
국사편찬위원회(1975). 『한국사』, 16.

- 김경태(1987). 『근대 한국의 민족운동과 그 사상』, 이화여대출판부.
- 김운미(1998). 『한국교육무용사』, 한학문화출판사.
- 나성원(1982). 『유길준의 교육사상연구』, 홍익대 대학원.
- 송방송(1984). 『한국음악통사』, 일조각.
- 신동욱(1984). 『한국 근대문학의 성립과 그 발전』, 성신여자대학교 인문과학  
연구소 편, 성신여자대학교 출판부.
- 유길준(1986). 『서유견문』, 김태준(역), 삼성미술문화재단.
- 이두현(1994). 『한국 연극사』, 학연사.
- 지명관(1985). 『한국문화사』, 삼민신서.
- 채희완(2000). 『한국춤의 정신은 무엇인가』, 도서출판 명경.
- Carr, E. H.(1974). *What is History?*. Pelican Book.
- 강만길(1986). “한국 근. 현대를 어떻게 볼 것인가”, 『신동아』, 8월호.
- 김복희(1996). “광복이전의 한국적 현대무용의 발전과정”, 대한무용학회 제  
19집.
- 오병년(1976). “발전기의 무용계(1937. 9. 7-14)”. 『무용』, 제3집, 한국문화예  
술진흥원.
- 이상연(1997). “춤 창작 경향에 비추어 본 근대 한국춤의 역사적 의미”, 중  
앙대학교 대학원.
- 이영희(1984). “한국 근대무용 사조에 관한 일고찰”,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  
교 교육대학원.
- 이장직(1983). “개화기 음악의 사회사”, 『객석』, 3월호.
- 정승희(1993). “근대무용의 태동과 민족주의적 무용사상 연구”, 이화여자대  
학교 무용과 창설 30주년 기념 논문집.

## Abstract

### A Study on the Idea of Dance During the Korea Civilization Period

Lee, Mi Young, Ph.D.

*Lecturer of Ewha Womans University, KukMin University*

The enlightenment ideas that swept the late Chosun dynasty was a principal ideology of one era that had not been formed by one particular element but by various social, academic fields related to politics, economy, society, religion and philosophy. Therefore, studying what influences such enlightenment ideas have exerted on dance like they have done on the other literary or musical fields and what those enlightenment thinkers thought of dance is important for understanding the history of danc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streams and characteristics of dance of that time - centering around the enlightenment ideas appeared before and after the opening of ports to foreign trade in the latter period of the 19th century. In this study, the decline, transformations and developments of dance in the midst of the conflicts between the old and new cultures and social upheavals are investigated, and the meaning of this investigation in the present circumstances of dance is presented.

It seems that dance played a pioneering of dance is presented modern culture since it penetrated deeply into the bottom of society mainly through its playground, the theatre, when the vestiges and evils of feudalism still strongly survived. Therefore, the author of this study thinks that an approach to the history of dance ideas is significant for studying the history of Korean dance.